

표제어의 풀이와 표제어 설정의 문제

남 기 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사전을 편찬하고자 할 때 먼저 부딪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표제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세우기가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다의어와 동음어의 구분이다. 강이나 바다에 띄우는 교통 운송기관으로서의 '배'〔舟〕,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배'〔腹〕, 과일(梨)의 한 종류로서의 '배'〔梨〕가 동음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세 가지 '배'의 뜻이 명백하게 서로 달라서, 상호간의 연관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옷에 무엇이 묻는다는 '묻다', 땅에 무엇을 묻는다는 '묻다'가 두 개의 동음어라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다는 '받다'와 소가 뿔로 사람을 받는다는 '받다', 그리고 움켜쥌다는 뜻의 '잡다'와 소나 돼지 등을 잡는다는 '잡다' 같은 것은 다의어로서의 한 개의 '잡다'로 보아야 할지 두 개의 동음어로 보아야 할지 선뜻 짐작이 가지 않으며,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는 '달'과 일 년 열두 달의 '달'은 두 개의 동음어이어야 할 듯하면서도 의미상의 연관성이 쉽게 느껴져서 역시 하나의 다의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존 국어 사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원칙도 제시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여러 사전의 방식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사전이 비슷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 예컨대, '잡다'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6 수정증보판)과 '새 우리말 큰사전'(삼성출판사, 1987 제7차 수정증보판)은 움켜쥌다는 뜻의 '잡다', 소나 돼지 같은 것을 잡는다는 '잡다', 어림잡아 얼마 할 때의 '잡다'의 세 품제어로 나누어 실음으로써 이 세 '잡다'를 동음어로 취급하였으며, '현대

조선말 사전'(북한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1)은 '잡다'를 한 개의 표제어로 올려 다의어로 다루었다. '받다'는 '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하나의 표제어로 잡았고, '새 우리말 큰사전'과 '현대 조선말 사전'은 두 개의 표제어로 잡았으며, '달'을 '국어대사전'이 한 개의 다의어로, '새 우리말 큰사전'과 '현대 조선말 사전'이 두 개의 동음어로 올리고 있다. 이 세 개의 낱말에 대하여 어떤 때는 '국어대사전'과 '새 우리말 큰사전'이, 어떤 때는 '새 우리말 큰사전'과 '현대 조선말 사전'이 태도를 같이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 조선말 사전'의 바탕이 되고 있는 '조선말 사전'(과학원 출판사, 1960)에서는 '받다'와 '달'도 각각 하나의 표제어로 올려 다의어 취급을 하였다.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동음의 낱말을 다의어로 볼 것이냐 동음어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만큼 해결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없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미론을 하는 사람들도 명쾌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Lyons와 Kempson처럼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의미의 분화가 통사론적인 특성의 차이를 수반하여 나타날 때는 그 객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주관적 판단이 앞서게 된다.

'현대 조선말 사전' 편찬에 직접 참여하여 그 편찬 방향을 정하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순기와 리기원 두 사람이 지은 '사전편찬 이론 연구'(북한 사회과학 출판사, 1984)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의어에 속하는가 아니면 소리같은말인가 하는것은 어휘의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조건에서 규정할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되는 것은 뜻의 자립성이다. 어휘적자립을 담보할수 있을만큼 뜻이 독자성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다의어인가 소리같은말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게 된다.”라고 하고, “단어의 갈라진뜻”이 “소리같은말의 기본뜻”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갈라진 뜻들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뜻 또는 본래뜻과의 호상관계는 어떠한가, 갈라진뜻들 사이에 의미상 접촉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뜻의 접촉점이 없다는 것은 기본뜻 또는 본래뜻과의 연계가 끊어졌다는 것, 다시말하여 해당 어휘의 대표적인 기본뜻에 종속됨이 없이 그자체가 독자적인 대표자 또는 새로운 대표자의 관할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116~117쪽)라고 하였다. 그러나 “갈라진뜻”이 “본래뜻”이나 “기본뜻”과

1) 이익환, 의미론 개론(한신문화사, 1985) 91~97쪽 참조.

연계가 끊어졌는지의 여부를 가름하는 일 바로 그것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인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설명은 별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의어와 소리같은말을 가르는데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수 있는것은 대상어휘들의 본래뜻에서 뜻들이 갈라져나오게 된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어렴풋이나마 짐작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설명할수 있다는것은 의미상접촉점을 찾을수 있는 가능성을 비교적 풍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짐작할수 있다는것은 좀더 고증하면 갈라져 온 뜻들의 줄기를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뜻들이 갈라져 나오게 된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수준의 것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설명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뜻이 어휘문법적특성을 가지게 되면 어휘적 분화는 더욱 촉진되고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진뜻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소리같은말로 분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뜻만이 아니라 어휘문법적 특성, 해당뜻을 나타내는 대상의 특성까지도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117쪽)라고 하여 어휘문법적 특성에 관해 언급한 것이 특이하나 구체적으로 어휘문법적 특성이란 것이 무엇을 일컫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의미적 특성과 문법적 특성의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두 가지 기준과 관련하여 예를 든 것은 ‘해’와 ‘달’에 대해서뿐인데, 117쪽에 “태양을 나타내는 <해>와 1년을 나타내는 <해>, 지구의 위성을 나타내는 <달>과 1개월을 나타내는 <달> 등은 (본래뜻에서 뜻들이 갈라져나오게 된 유래의) 호상연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치 이들을 각기 하나의 다의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가, 118쪽에서는 이 두 쌍의 ‘해’와 ‘달’이 독자적인 개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결합구조적면에서나 단어조성적면에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발전하였다.”라고 그 문법적 특성의 차이를 드러내서 이들을 각기 두 개의 동음어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는 듯도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현대 조선말사전’에서 이들을 동음어로 다루고 있으니, 갈라진 뜻의 본래 뜻과의 연계성 여부에는 문법적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의어나 동음어나, 따라서 한 개의 표제어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표제어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화된 뜻에 상응하는 문법적 특성이 있으면 그 분화된 의미의 독자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동사 ‘만들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 표제어 분할의 이론적 근거 하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³⁾

2

동사 ‘만들다’는 무언가 없던 것을 있도록 만들어 낸다는 뜻과 이미 존재하는 사물을 달리 변화시킨다는 뜻, 적어도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예문 (1)의 ‘만들다’는 첫번째 뜻, 예문 (2)의 ‘만들다’는 두번째 뜻으로 쓰였다.

(1) 철수가 참나무로 이 필통을 만들었다.

(2) 그는 손자를 판사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쓰임의 ‘만들다’를 ‘국어대사전’과 ‘현대 조선말사전’은 한 개의 표제어로, ‘새 우리말 큰사전’은 두 개의 표제어로 올리고 있다. 이 ‘만들다’는 다음과 같이 용언의 ‘-게, -도록’형을 보어로 하여 쓰이기도 한다.

(3) 그사람을 죽게 만들다니!

(4) 네가 그를 기다리도록 만들었니?

‘국어대사전’은 ‘만들다’를 하나의 다의어로 다루되 그 뜻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고, 첫 갈래를 다시 7가지 뜻으로 잘게 나누었는데, 위의 (1)에서의 용법 및 그 계통의 쓰임에 관한 것들을 이 첫 갈래로, (2)~(4)에서의 같은 쓰임을 두 번째 갈래로 하였다. ‘현대 조선말사전’은 ‘만들다’의 뜻을 10가지로 나누어 풀이하는 중에 이 모든 용법을 설명했으며, ‘새 우리말 큰사전’은 (2)~(4)의 ‘만들다’를 따로 표제어로 올림으로써 이 두 가지 용법의 ‘만들다’를 동음어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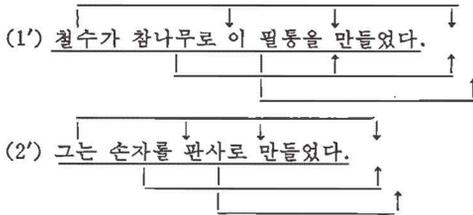
이제 이 두 가지 용법의 ‘만들다’를 두 개의 동음어 ‘만들다₁’과 ‘만들다₂’로 다루어야 할 근거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위에 보인 ‘만들다₁’문장

2) 홍재성 교수가 이러한 견해를 여러 군데서 피력한 바 있다. 그의 논문들, “한국어 사전에서의 다의어 처리와 동형어 처리의 선택,” ‘동방학지’ 54~56 합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7);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성곡논총’ 18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87); “내려가다/내려오다와 그 사전적 처리,” ‘애산학보’ 7집 (애산학회, 1989) 등 참조.

3) 다음에, 동사 ‘만들다’의 분할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는 특수적 사실은 필자의 사전학 강의 시간에 제출한 연세대 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생 유현경의 보고서에 의존한 바 많다.

인 (1)과 ‘만들다₂’문장인 (2)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통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

첫째로, 문장 (1)은 그 문장 성분간에 어순 변환이 자유스러운데, 문장 (2)는 그렇지 않다.



문장 (2)의 성분 ‘체언-(으)로’는 항상 동사 ‘만들다’앞에만 위치한다. 이것은 “A가 B가 된다.”, “A가 B가 아니다”와 같은 문장의 보어 ‘B가’가 다른 자리로 위치를 옮길 수 없는 것과 상통하는 현상이다.

둘째로, ‘만들다₂’ 문장 (2)의 ‘체언-(으)로’는 조사 ‘-으로’ 대신에 ‘-을’을 취할 수 있다.

(2'') 그는 아들을 손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만들다₁’ 문장 (1)의 ‘체언-(으)로’의 조사를 ‘-을’로 바꾸면 설사 문장이 성립한다고 해도 뜻이 달라진다.

셋째로, ‘만들다₁’ 문장 (1)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체언은 그 문장을 관계화하였을 때 그 표제명사가 될 수 있으며, ‘만들다₂’ 문장 (2)의 다른 체언 성분도 그러하되 ‘체언-(으)로’의 체언은 그렇지 못하다.

(1'') 가. 철수가 이 필통을 만든 참나무

나. 철수가 참나무로 만든 이 필통

(2'') 가. *그가 판사로 만든 손자

나. 손자를 판사로 만든 그

다. *그가 손자를 만든 판사.

넷째로, ‘만들다₂’ 문장의 구조를 “체언₁-이/가 체언₂-을/를 체언₃-(으)로 만들다”라고 한다면 ‘체언₃-(으)로’의 의미상 ‘체언₂’를 주어로 하여 그 서술어 기능을 한다. 이 ‘체언₃-(으)로’의 자리에는 앞의 예문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언의 ‘-게’ 또는 ‘-도록’형이 오는데 이 때의 용언도 의미상 ‘체언₂’의 서술어 기능을 한다. 예컨대, 문장 (3)의 ‘죽도록’의 의

미상 주체는 ‘그 사람’이며, 예문 (4)의 ‘기다리도록’의 의미상 주체는 ‘그’이다. 이 때의 이 부사형은 ‘체언₃-(으)로’의 자리에 오는 한 필수적이다. 이 자리에 다른 종류의 부사가 오면 비문이 되거나, ‘만들다₁’ 문장이 된다.

(5) *그는 손자를 자주 만들었다.

(6) 그가 내 차를 빨리 만들었다.

위의 (5)는 문장 (2)의 ‘체언-(으)로’ 자리에 일반 부사를 쓴 것이며, (6)은 “그가 내 차를 못쓰게 만들었다.”에서 용언의 ‘-게’형 ‘못쓰게’ 대신 일반 부사를 쓴 것이다. 이 때 (6)은 비문은 아니지만 부사 ‘빨리’가 ‘내 차’의 의미상 서술 기능이 없다. 이 (6)은 ‘만들다₁’ 문장이다.

다섯째로, 동일한 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 대등 접속될 때 단일 선후행절 모두에 같은 명사가 쓰였으면 후행절의 명사가 생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들다₁’ 문장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데, ‘만들다₂’ 문장의 ‘체언₃’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7) 가. 그는 참나무로 필통을 만들고 나는 참나무로 재떨이를 만들었다.

→그는 참나무로 필통을 만들고 나는 ...재떨이를 만들었다.

나. 그는 참나무로 필통을 만들고 나는 소나무로 필통을 만들었다.

→그는 참나무로 필통을 만들고 나는 소나무로 ...만들었다.

(8) 가. 그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나는 아들을 군인을 만들었다.

→그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나는 ...군인을 만들었다.

나. 그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나는 손자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나는 손자를 ...만들었다.

여섯째로, ‘만들다₁’은 ‘체언-(으)로’가 없이 목적어 ‘체언-을/를’만으로도 문장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만들다₁’은 ‘체언-을/를’만을 필수항으로 요구하며 ‘체언-(으)로’는 수의항이다. 문장 (1)에서 ‘참나무로’를 뺀 다음의 (9)도 문법적이다.

(9) 철수가 이 필통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서 ‘체언-(으)로’가 없는 다음의 모든 문장이 모두 문법적이며 이들은 다 ‘만들다₁’ 문장이다.

(10) 국회는 법을 만든다.

(11) 전의원 모씨가 새 정당을 만들었다.

(12) 우리 또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자.

그러나 ‘만들다₂’는 주어말고도 반드시 두 개의 명사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3) 예수가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

(14) 그가 내 것을 제 것으로 만들었다.

이들 문장에서 ‘빵으로’, ‘제 것으로’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뜻이 아주 달라진다. 즉, (13)~(14)에서 새로 생겨난 것은 ‘빵’과 ‘제 것’인데 ‘빵으로’와 ‘제 것으로’가 빠지면 그 때 새로 생겨난 물건은 ‘돌’과 ‘내 것’이 된다.

3

이상에서 ‘만들다₁’과 ‘만들다₂’이 취하는 명사항(논항)의 종류와 성질이 다르고, 그들이 필수적으로 취하는 명사항의 수가 다르다는 것을 논했거니와 그에 상응하여 이들의 의미 기능도 다르다. 즉, ‘만들다₁’은 앞의 예문 (1)을 비롯하여 (9)~(12)에서 보는 것처럼 없던 사물을 생기게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데 대하여, ‘만들다₂’는 (2)나 (13)~(14)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바꾼다는 뜻을 나타낸다. 물론 이들은 같은 동사로서 그 쓰임이 분화된 것에 틀림이 없지마는 공식적으로는 위에서 논한 것과 같은 통사적인 차이와 아울러 의미론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두 개의 동음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사전에도 두 개의 표제어로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용언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동음어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5) 가. 그가 살았다.

나. 그가 서울에 살았었다.

(16) 가. 이 방이 더 밝다.

나. 그가 한국 역사에 아주 밝다.

(15)의 ‘살다’는 (가)에서는 ‘생존한다’는 뜻으로 쓰였으며, (나)에서는 ‘거주한다’로 쓰였는데 (나)의 경우에는 명사항 ‘채운-에’를 필수적으로 가진다. (16)의 두 ‘밝다’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적, 통사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은 일차적으로 그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그들의 사용

상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사전 편찬의 실체가 언어 이론적 주장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며, 표제어를 분할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러한 사전 편찬의 실제와 무관할 수 없다.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는 어느 표제어에 대한 풀이가 길어져서 5인치가 넘어서면 다시 새 표제어로 하여 풀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 이용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만들다'가 두 개의 표제어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측면에서의 주장이다.